

장진기/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2013년 8월 30일
6번째 선교편지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Tel: 855-97-807-1720(장진기)
E-mail: changjinkee@gmail.com

Tel: 855-89-859-230(김은경)
E-mail: keksk21@gmail.com



후원동역자님들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름사역으로 모두가 바쁜 계절,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故 방효원 선교사님(가정)의 순직 소식을 가슴에 묻기도 전, 이번엔 저희의 언어교육을 위해 힘써 주었던 현직인 '포'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생각하며 소천 후에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힘썼던 목사님의 소식을 접하면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그 깊으신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이 채 못 되어 질병으로 고생하시던 목사님의 어머니도 자녀(목사님)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남은 교회를 위해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선의 결과

7월 총선의 결과, 총 123석 중 66석을 확보한 인민당(CPP)은 과반 의석의 확보로 표면적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지난 선거 결과(90석)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실로 참담한 패배를 맞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55석을 확보한 삼랑시당의 당수 삼랑시는 결과적 승리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불법선거에 대항하는 대규모집회를 열며, 강력한 대응을 표출하고 있어, 캄보디아는 지금 폭풍전야를 방불케 합니다.

현재 많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걱정이 앞선 일부 청년들은 본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복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더욱이 캄봉참의 경우, 훈센 총리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압승으로 패함에 따라 모든 관공서 직원들은 숨 죽인채 유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빠른 시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방문과 답사

김은경 선교사의 부모님(장인, 장모님)께서 가정을 방문, 위로와 격려로 삶의 재충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정 가운데, 주변 선교사님들과 세광교회 청년부 단기팀을 각각 초청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가정의 위로와 격려만이 아닌 캄봉참 전체로 나눔의 시간이 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학교 설립을 위한 첫걸음 - 관계를 시작하다.

현직 (초등학교)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용업 장로님의 도움으로 지역학교 후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캄봉참 주 교육청과 타운 내 담당자를 만나 지역의 학교현황과 후원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논의로 학교설립에 대한 내용은 나누진 못했지만, 그 시작을 알리는 관계를 트는 시점이라 생각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담당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 향후 기독교학교 설립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사역 - 활동적 교회세우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시작한 찬양팀 사역을 보다 넓게 확대하기 위해 기타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고자 하는 원생은 많지만, 이를 채워줄 공급이 부족하여 먼저는 필요를 채울 장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비가 마련되는 대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중에 시작하기에 위해서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단기팀 방문 - 하베스트(수영로교회) 의료선교팀

인근 선교사님의 의료선교팀 방문으로 원아들의 건강검진(치과검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치과진료가 무서웠던 '뽀야'는 끝까지 입을 벌리지 않아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아들에게 청결한 생활습관을 가르치지만, 청개구리 같은 몇 명의 원아들은 자신의 선택이 때론 아픔을 견뎌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기팀 방문 - 예수대 간호학과 단기팀 / 의료선교팀

헤브론 선교병원을 통해 예수대(간호학과)단기팀과 의료선교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료봉사를 통해 원과 지역 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로 더욱 큰 나눔의 시간이 되어 다시금 주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방문하여 수고하신 예수대 단기팀과 의료선교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기팀 방문 - 워싱턴 성광교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워서 함께하는 워싱턴성광교회 단기팀 방문이 있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쉼 없이 수고함으로 봉사한 팀의 흔적이 원의 곳곳에 남아있음을 봅니다.

특히 원내 환경미화를 위해 내·외부 페인트 작업과 전기·수도공사 등, 그간 필요를 채우지 못했던 곳의 채움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 그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채움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고아원 환경개선 프로젝트 - 시설 설치 및 보수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운동시설(배구코트, 농구대) 설치 및 보수(건조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덕분에 단기팀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더 다양해졌으며, 부족했던 시설의 확충은 더 나은 여건으로의 원이 되는데 큰 힘이 됨을 봅니다.





교아원 환경개선 프로젝트 - 4층 옥상교실 구성작업

원생의 교육을 위한 시설확보를 위해 4층 옥상을 공사하여 새로운 교실로 꾸미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의실 형태의 2개 교실을 구성하여 학업에 필요한 교육 및 외국어(영어, 한국어 등)교실을 운영하며, 동시에 개인열람 기능이 가능한 형태의 교실을 구성하여 각자의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작단계로 주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중고 강의용 책걸상을 지원받아 수리 중에 있습니다. 사용되어질 교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콘서트 - 특별출연

캄풍참 지역을 함께 섬기는 김성태 선교사님께서 지역 복음화 사역의 일환으로 500석 규모의 극장을 빌려 찬양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캄풍참 전체에서 처음 계획된 대형 집회라는 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선교사님의 요청과 원생들의 특별한 섬김이 하나되어 Shining star Children House의 이름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생들의 찬양과 율동, 기타 사진들을 보기 원하시는 동역자님께서는 Facebook을 통해 Shining Star Children House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10520349009872/>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 ① 캄보디아에 온지 6개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사역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첫발을 내딛는 어린아이와 같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정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 ② 이번 달부터 대학교재(ISF) 4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언어공부에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교재의 주된 내용이 캄보디아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언어를 배우며, 동시에 그 문화를 습득하는 시간이 되어 캄보디아 문화의 이해를 통해 더욱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가정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 ③ 9월부터 자녀(지아)의 홈스쿨링이 시작됩니다.
'A Beka Academy'에서 나오는 교재를 통해 공부할 계획인데, 준비에서부터 교육까지 규모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또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김은경 선교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하사 주님 안에서의 교육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캄보디아 캄풍참에서
무익한 종 장진기 / 김은경(지아, 지훈) 선교사 올림